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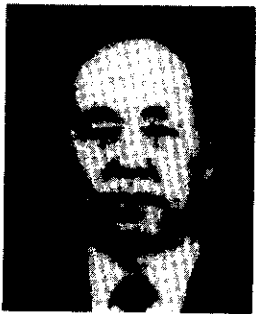
북한을 움직이는 사람들(3)

유영구 / 중앙일보 북한 전문기자

이번 호에는 북한의 경제를 관장하는 당·정 고위 간부들과 정무원의 부장·위원장들의 프로필을 소개한다. 정무원의 부장·위원장들 전체를 소개하지는 않고 김일성 사망 당시 국가장외위원회 명부(전체 273명)에서 170번째 안에 드는 지도자들만 다룬다. 당·정 고위 경제 간부의 경력은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정무원 부장·위원장들의 경력은 파악이 어려워 간략히 소개한다.

<당·정 고위 경제 간부>

서관희



서관희는 북한 최고의 농업 전문가다. 실패의 늪에 빠진 북한 농업 사정 때문에 요즘 그는 좌불안석일 것 같다.

1950년에 모스크바대학에 유학을 가 1954년에 귀국하면서 평양시 인민위원회 농업부장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처음부터 농업 전문가로서의 길을 걸었다. 1963년에 평양시 농업관리위원회 부위원장, 1967년에 평양시 농업관리위원장을 거쳤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1973년에는 정무원 농업위원장으로 발탁됐다.

그는 농업위원장을 6년간 맡아 일하다가 1979년 1월에 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1980년 10월에 곧 정무원 부총리로 올라서고 이듬해 6월에는 농업위원장직을 겸하게 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1982년 2월부터 현재까지 농업담당 비서로 일하고 있다(당중앙위원으로 선출된 것은 1976년 7월이다). 그의 경력은 농업 전문가로서의 길 외에 찾아보기 어렵다.

서관희는 김일성이 창안했다는 '주체농법'을 사실상 창안하고 뒷받침해 온 인물이다. 평양시 농업관리위원장 시절에 시험 농장(평양시 대성구역의 김일성 시험 포전)에서 주체농법의 창시에 힘써 김일성의 눈에 들어 농업 부문 최

고책임자로 성장했던 것이다. 그는 김일성의 지시를 실천하기 위해 직접 벼 농사, 강냉이 농사 시범 재배, 강냉이 영양단지 재배법, 벼 냉상모 육성법, 여러 종자의 시험 재배 등에 나서 성과를 올렸고, 이 경험을 평양시 일대의 농업에 일반화시킨 장본인으로 유명하다. 그는 김일성의 농업 부문 현지지도에는 빠짐없이 따라다닌다. 또 정무원 농업위원장 시절에 농업 분야의 허위·과장 보고를 줄이는 데 앞장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신문 등 북한의 보도매체들은 그의 이름 끝자를 분명히 '히'로 쓴다. 그러나 조총련 자료들은 한자로 표기할 때 '熙'로 쓰기 때문에 혼란이 다소 있다. 여기서는 북한 매체들이 쓰는 표현을 그대로 둔다)

김 환



김환 부총리는 구동독 라이프치히의 칼마르크스공대 대학원에서 연구한 북한 최고의 화학 분야 전문가였다. 그는 김일성의 빨치산 부대원으로 활

동하다 전사해 오늘날까지 모범적인 혁명가로 추앙받는 김혁의 아들로 빨치산 2세 그룹의 선두 주자의 한사람이다.

그는 유학을 마치고 1957년에 귀국한 뒤 내각 중공업성 산하 화학공업연구소에서 일하다가 1963년부터 함흥화학대학 교수로 일했다(이 무렵 당중공업부 과장으로 임명돼 당중앙에서 일했다는 설도 있다). 그는 1968년에 내각 방직제지공업성 부상을 거쳐 1972년 12월에 정무원 화학공업부장에 취임해 이 분야의 1인자로 두각을 나타냈다.

김정일과의 인연은 1974년 10월 당중앙 학교 교육부장에 앉으면서 깊어진다. 그뒤 1978년 9월에 당정치위원 겸 비서(과학교육 담당)로까지 올라선 것은 학교교육부장 시절 '교육 부문에서의 김정일 우상화'에 열심히 나서 김정일의 눈에 들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 정치국원·비서로 재선출되고 1982년 4월에 중앙인민위원회(중앙인민위원회는 1977년 12월부터) 및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위원회장에도 선출되는 등 다양한 경력을 쌓게 된다.

차세대 지도자로 각광을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그가 부침을 겪게 되는 것은 1983년 6월 당 비서에서 해임되고 정무원 부총리로 전출되면서이다. 1985년 10월에 열린 당정치국·중앙인민위원회 합동회의에서 부총리직에서마저 물러났다. 4개월만인 1986년 2월에 당비서로 복귀해 재기했으나 그해 12월에 정무원 화학·중공업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1987년 3월에 정무원 부총리로 승진한 뒤 화학·중공업위원

상과 화학공업부장을 겸하거나 겸직 해제되는 변화를 겪지만 1992년 12월부터 부총리 겸 화학공업부장을 맡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의 부침과 관련, 그가 양강도 김정숙군에 중국식 특구를 만들려다 좌초했다는 관측이 외부에 나돌았다. 아이디어 단계에서 김정일의 지지를 받아 현지 조사단을 파견하고 계획을 추진했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김일성의 반대로 백지화됐다는 얘기가. 그러나 나진·선봉 지구의 개발 계획을 볼 때 김정일 시대에 김환의 역할은 재평가될 여지가 있다.

김복신



김복신은 방직공장 노동자 출신으로 해방 후 방직공장 지배인을 하다가 김일성의 현장 발탁인사 케이스로 급부상한 경공업 분야의 제1인자다.

그녀는 전쟁 시기에 강계피복공장과 신천피복공장 지배인을 지냈고 1951년 노동당 중앙당 학교를 마치고 1955년에 신의주펠프공장 당위원장(1957년 지배인), 1958년 6월에 김주필프공장 지배인을 맡기도 했다. 그 뒤 경공업, 특히 방직 분야의 총책임자로 급부상한 이상부다. 즉 1958년 9월에 내각 경공업성 부상, 1960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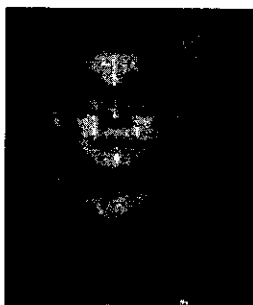
당경공업부 부부장, 1961년에 내각 경공업위원회 부위원장, 1966년에 평양시 지방산업총국 부국장, 1971년에 내각 방직공업상, 1972년에 정무원 경공업위원회 피복공업총국장, 1981년에 부총리, 1982년에 부총리 겸 경공업위원장등을 역임했다. 그녀의 모든 경력이 경공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그녀는 1985년 10월부터 정무원 부총리 겸 무역위원장(1986년 2월부터는 부총리 겸 대외경제위원장)을 맡는 등 대외 경제 분야로 자리를 옮겨 3년 남짓 일하다가 1988년 6월에 부총리 겸 경공업위원장으로 되돌아가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1983년 12월에 당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상당히 부상하다가 1992년 12월에 이 자리에서 해임되어 정무원 업무에 주력하고 있는 중이다.

김복신은 노동자 생활에서 공장 책임자를 거쳐 경제 고관 간부로 성장한 특수성 때문에 생산 현장 분위기를 가장 잘 아는 관리로 통한다.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공장 근로자들 속에 들어가 일하는 대중성이 높은 간부다. 김일성·김정일 생일을 맞아 학생들에게 선물할 생일옷을 생산하는 데서 공을 세워 김정일과도 친분을 유지해 왔다.

공진태

공진태는 국가 통제 및 대외 경제 부문에 오



랫동안 종사해 온 경제 관료로 지금은 인민봉사 부문(서비스 분야)의 총책임자다.

그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1954년에 국가계획위원회 중앙

통계국의 지도원(인민경제대학 교수설도 있다)으로 공식 생활을 시작해 몇 년간 쿠바 국가통계국 고문으로 파견되기도 한 이색적인 경력을 갖고 있다. 1975년 6월에 정무원 부총리가 되기 이전에 그는 1963년 내각 대외경제총국 부총국장, 1964년 총국장, 1966년 내각 석탄공업성 부상, 1967년 내각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 1971년 대외경제위원장, 1972년 정무원 대외경제사업부장, 1974년 정무원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부총리가 된 뒤에는 다른 직책과 겸직 및 겸직 해제를 반복해 왔다. 이를테면 1977년 12월 대외경제사업부 부장, 1978년 2월 해제, 1980년 12월 국가계획위원장 겸직, 1982년 4월 무역위원장 겸직 등이었다.

공진대는 무난한 관운을 보이다가 1985년 10월에 정무원 부총리 겸 무역위원장에서 부총리직이 떨어진 인민봉사위원장으로 한 단계 떨어지는 어려움을 맞는다. 그뒤 인민봉사위원장 자리를 지키다가 1994년 1월 부총리 겸직으로 재기했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당중앙위원회 올라선 것이 1976년이고 1980년 10월의 6차 당대

회에서는 당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1985년 10월 부총리에서 떨어진 지 4개월만인 1986년 2월에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물러나 지금까지 그대로이다.

그는 김일성의 해외 나들이에 통계 전문가로 따라 다니며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외경제위원장 시절에 노동당이 직영하는 대성상사의 업무를 측면에서 지원해 김정일도 그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그는 부총리에서 물러나며 서비스 분야로 업무를 옮긴 뒤 담보를 거둬하고 있다. 대외 경제 부문에 새 전문관료들이 부상하고 있어 대외 경제 부문에 복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윤기복



윤기복은 통계에 밝은 경제 전문가이자 교육·대남통이다. 지금은 정무원의 경제사업을 정책적으로 지도하는 중앙인민위원회의 경제정책 책임자

로 일하고 있다.

경기중학 출신인 윤기복은 해방후 공청 활동을 하다가 1948년에 모스크바대학으로 유학가 정치경제학부에서 통계학을 전공했다. 귀국후인 1956년에 인민경제대학 교수를 잠시 지냈

고 1957년에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계국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그 이듬해부터 5년간 김일성의 경제담당 개인 비서로 일하면서 김일성과 밀착됐다. 이런 인연 때문에 그는 1967년에 일어난 박금철·이효순 사건에 간접적으로 간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비판 후 현직 복귀가 가능했다고 한다.

그는 1962년에 내각 보통교육상, 1967년에 내각 재정상, 1968년에 내각 국가계획위원장, 1971년에 당중앙위 과학교육부장, 1972년에 대외문화연락협회 부위원장, 1973년에 최고인민회의 법안심의회위원장, 1976년에 중앙인민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등 요직을 거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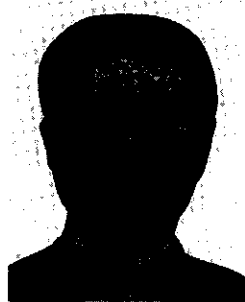
1972년 남북대화 당시 북측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과 관련, 그 뒤 1981년 5월부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1990년 1월부터 1993년 초까지 대남 비서로 활동했으나 지금은 중앙인민위원회의 경제정책위원장으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갔다.

그는 일찌기 1968년에 당중앙위원회에 선출됐으며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당정치국 후보위원 겸 비서로 선출되는 등 정치적으로 부상하다가 1983년 6월에 당비서를, 9월에 정치국 후보위원 자리를 각각 잃었다. 당비서에서 해임될 때 평양시 인민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전통적으로 평양 출신이 아니면 평양시 인민위원장을 오래 할 수 없다는 불문율을 깨지 못하고 1984년 10월에 이 자리에서 물러나 중앙인민위

원회 경제정책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부위원장을 맡게 된다(1986년 10월 제1부위원장, 1988년 9월 위원장).

그 뒤 앞서 지적한대로 1990년부터 대남 부문(1990년 1월 대남 비서, 1990년 12월에는 신설된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심의위원장 겸직, 대남 비서의 당연직)을 맡았다가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통일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명칭 변경)자리에서 물러나고 그 해 10월에 중앙인민위원회 경제정책위원장에 임명되면서 대남 부문에서 손을 떼는 것이다.

박남기



박남기는 현재 평양특별시 행정경제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당 중앙에서 경제 계획·상업·제정을 총괄하던 경제 전문 비서였다. 김일성·김정

일이 그를 평양시 경제 책임자로 앉힌 것은 이른바 '혁명의 수도' 평양의 건설이 북한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이다.

그는 김책공대를 거쳐 1958년에 레닌그라드공대의 유학을 마치고 당중앙위원회 상업재정계획부 지도원으로 경제 관료 생활에 발을 들여놓았다. 1963년에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

국 부국장, 1965년에 당중앙위 상업재정계획부과장, 1969년에 부부장, 1972년에 내각으로 자리를 옮겨 금속공업성 부상, 1976년에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1984년 11월에 당 중공업부장(7월 당중앙위원), 1985년 2월에 당 경제비서 등 경제 요직을 두루 거쳤다. 북한에서는 통계 전문가로는 윤기복 다음으로 손꼽힌다(1990년 5월~1993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위원장 역임).

그는 경제 통계에 밝아 김정일의 경제 고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일이 경제 관련 정책 아이디어는 박남기를 거쳐 보고하라고 지시했을 정도로 신임이 두텁다고 한다. 그가 1986년 12월에 당비서에서 해임된 것이 큰 파오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당비서 해임과 동시에 정무원 국가계획위원장을 맡았고 1987년 10월에 이 자리에서 물러나자 또 1년 뒤인 1988년 11월에 당비서로 복귀했다가 다시 물러나 평양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자리로 옮겼던 것이다. 그가 김정일의 신임으로 1980년대 중반에 급격히 부상한 만큼 앞으로도 핵심 지위로 복귀가 가능하다.

김경희

김경희는 김정일의 유일한 친혈육인 만큼 최측근이 아닐 수 없다. 그녀는 김일성 일가답게 좀처럼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며 주로 당내 활

동에 국한되어 왔다.

그녀가 당경공업부장에 취임한 것은 1987년 9월로 알려져 있다. 그 전까지는 당국재부 부부장으로 외교 분야의 인사를 전담한 배일 속의 실력자였다(1984년 2월부터 당 부부장 직책 확인). 지금은 김정일이 강조해 온 경공업 혁명·봉사 혁명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1988년 11월에 당중앙위원에 선출된 그녀는 북한 경제 분야에서 위상에 비해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다. 그녀의 얼굴조차도 김일성 사망 당시 장의 행사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채희정

채희정은 인민경제대학 교수 출신의 이론·실무를 겸비한 경제 전문가이다.

그는 해방 후 공청 활동을 하다가 김일성대학 특설학부를 거쳐 1947년에 모스크바대학 정치경제학부에 유학했다. 1955년에 졸업과 동시에 귀국해 인민경제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1958년에 김일성의 경제 이론 부문 비서로 발탁되면서 1960년대에 사회주의 정치경제이론 분야의 1인자로 명성을 날렸다.

채희정은 1961년 당중앙위 부부장(당중앙위원), 1965년 내각 참사, 1966년 당 중앙위 문서부장을 역임하는 등 잘 나가다 1967년에 함북 명천 일용품 공장 부지배인으로 좌천되는 고초를 겪었다. 그러나 1977년 12월에 정무원 노동

행정부장으로 입각하면서 재기에 성공한다 (1980년 10월 당중앙위 후보위원, 1982년 9월 당중앙위원). 그가 당계획·재정 담당 비서로 복귀해 예전의 능력을 다시 발휘하게 된 것은 1983년 4월이다. 1984년부터 최고인민회의 법안 심의위원장도 겸한다.

그의 부침은 그 뒤에도 약간 나타났다. 1986년 11월에 당비서에서 해임되고 1988년 9월에 정무원 노동행정부장, 11월에 정무원 합영공업부장(1990년 4월 합영공업부 폐지)을 거쳐 1990년 중앙인민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및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회 부위원장을 겸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는 김정일의 대학 시절 정치경제학 가정교수이기도 하여 김정일과도 관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인연 때문에 김정일 체제가 들어선 이후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정치경제학 이론과 실무 능력은 과거의 낡은 것으로 치부되고 있어 점차 하락의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김달현

김달현은 현재 함흥의 2·8비날론연합기업소 지배인으로 좌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3년 12월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기까지는 '잘나가는' 대외 경제통이었다.

김정일이 개방을 확대할 생각이면 그를 다시



주요 직책으로 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 때는 강성산 총리가 건강 때문에 집무 수행이 어렵다는 소문과 함께 김달현의 '총리 물망'설까지 나돌았던

적이 있다.

그는 1992년 남북 경협 논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해 산업 시설들을 둘러 보기도 한 실무형의 개방적 인물이며 남북 경협 문제를 주도했다. 1991년 11월 문선명 통일교 교주 일행 초청과 1992년 1월 김우중 대우 그룹 회장의 공식 초청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정치 경력이나 나이로 보아 파격적으로 급부상해온 그는 김일성 조카별로 김정일의 신진 측근이다. 알바니아 국제관계대학을 나온 그는 비상한 두뇌에 탁월한 업무 능력을 갖췄으며 성격도 개방적이고 원만하다는 평이다. 외국의 신문 잡지를 손에서 놓지 않아 국제 정보에도 밝다.

김달현의 경력 가운데 확인되는 첫 경력은 1977년에 과학원 부원장으로 과학원 대표단을 이끌고 폴란드·구동독·불가리아 등을 순방한 것이다. 그는 1984년 8월 정무원 참사실장 자격으로 강성산 총리의 중국 방문 때 수행하는 등 강총리 밑에서 경제 행정을 배우며 브레인으로 활동했다. 1987년 3월에 정무원 화학 및 경공업위원장, 1988년 12월 정무원 국가계획위

원장, 6월에 정무원 대외경제위원장 등을 역임하게 된다. 대외경제위원장을 맡은 1988년은 그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해로 기록된다. 그 해 8월에 조선국제합영총회사 이사장, 10월에는 무역부장까지 겸하게 되어 대외 부문의 총수가 됐기 때문이다.

1990년 5월에는 부총리로 승진해 이례적으로 부총리·대외경제위원장·무역부장을 겸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런 그가 1992년 12월에 국가계획위원장(이전에 정치국 후보위원 발탁)으로 자리를 옮길 때만 해도 각광을 받았는데 1년만인 1993년 12월에 돌연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에서 물러나는 비운을 맛보게 된 것이다. 향후 거취가 가장 주목되는 인물이다.

<정무원 주요 경제 담당 부장·위원장들>

이지찬

1948년 3월 당중앙위 후보위원
 1952년 5월 내각 중공업성 전기국장
 1953년 10월 수풍발전소 지배인
 1955년 12월 내각 전기성 부상
 1959년 6월 내각 전기석탄공업성 부상
 1970년 11월 당중앙위원
 1977년 6월 정무원 전력공업부장
 1985년 11월 정무원 전력공업위원장(전력공

업부 개칭)

김창호

1968년 중앙방송위원회 부위원장
 1980년 10월 당중앙위 후보위원(1985년 5월 해임)
 1982년 4월 정무원 국가과학기술위원장
 1988년 9월 정무원 체신부장
 1989년 6월 당중앙위 후보위원
 1990년 12월 정무원 전자자동화공업위원장
 1992년 12월 당중앙위원

이 석

1984년 7월 당중앙검사위원
 1986년 12월 정무원 선박공업부장(당중앙위 후보위원)
 1988년 3월 당중앙위원

이철봉

1970년 1월 인민군 소장
 11월 당중앙위 후보위원
 1974년 7월 정무원 교통체신위원회 해운부장
 1977년 12월 정무원 육해운부장(1982년 4월 해임)

1984년 6월 정무원 사회안전부장(1985년
10월 해임), 인민군 중장
7월 당중앙위원

1987년 8월 정무원 사회안전부 정치국장

1989년 6월 정무원 도시경영부장

이성대

1987년 8월 정무원 무역부 부부장

1992년 7월 중국 대사관 무역참사

1992년 12월 정무원 대외경제위원장(당중앙
위 후보위원)

김응상

1953년 10월 당중앙위 부부장

1957년 10월 내각 교육문화성 부장

1958년 12월 내각 국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1961년 9월 당중앙위 후보위원

1963년 11월 내각 제6사무국장

1965년 1월 내각 건재공업상

1968년 10월 내각 사무국장

1982년 4월 정무원 국가건설위원장

김원진

1979년 6월 농업과학원 부원장

1988년 3월 당중앙위 후보위원

10월 정무원 농업위원회 제1부위원장

1990년 10월 정무원 농업위원장

김리룡

1990년 1월 정무원 석탄공업부장

5월 당중앙위 후보위원

곽범기

1990년 11월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 지배인

1993년 2월 정무원 기계공업부장

12월 당중앙위 후보위원

김세영

1979년 12월 정무원 자원개발부장

1986년 2월 당중앙위 후보위원

김성구

1982년 3월 남흥청년화학종합공장 지배인

1984년 12월 정무원 화학공업부장(당중앙위
후보위원)

1989년 8월 정무원 지방공업부장

정성택

1988년 3월 당중앙위 후보위원

11월 조선중앙은행 총재